



3면

"14일, 1만 전북도민대회 선포"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음 11월 13일) 제36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전주시 국가예산 2조1585억원

올해보다 568억원 증액...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등 대규모 신규사업 확보로 새로운 전주 조성 추진동력 얻어

전주시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2조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전주를 만들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2025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2조1,017억원보다 568억원(2.7%) 늘어난 2조1,585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증액 및 신규사업 억제 △복잡한 정치 상황 속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 의결 등으로 지자체의 증액 요청 사업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 등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물이다.

분야별로는 △광역·도시 분야 4,893억원 △경제·산업 분야 6,462억원 △문화·관광 분야 1,397억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8,83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및 전주천(국가하천 승격구간) 정비 등 대규모 사업과 2025 전주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갈 단단한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인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481억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총 6,24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 강한 경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상생 광역도시 생활권 및 사회구조·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전주천(국가하천 승격구간) 정비(20억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102억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30억원) 등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주역사 개신(80억원) △육상경기장 건립(27억원) △기린대로 BRT 구축(100억원) 등 지방시대 새로운 메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비도 확보했다.

또한 시는 △드론축구월드컵 글로벌 확산을 위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사진 가운데)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컵'(30억원) △다양한 품질 인증을 통해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구축'(5억원)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할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12억원) 등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인 드론·탄소·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 동력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후백제 유적을 통해 천년왕도의 영광을 되살리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의 부지가 전주주최 최종 확정돼 명실공히 후백제의 수도로 인정받는 등 체류형 문화관광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남부권에 이어 동부권(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예산도 확보하며 공공 체육시설 균형 배치로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여기에 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71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35억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건립(10억원) △K-한지마을 조성(1억원) 등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계속사업 예산도 품품히 챙겼다.

끝으로 시는 사회전체의 연대로 모두가 어울려 돌봄 받고 배려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42억원) 예산도 확보했으며,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5억원) △공덕재해위험지역 정비(6억원) △취약지구 새마을을 조성(13억원) △원동세천 정비(6억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모두가 소외된 없는 사회 안전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연초부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을 건의했다. 동시에, 지역 연고 국회의원과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세종사업소를 활용한 예산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부안에 과소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여야 지도부, 예결위원과 주요 상임위원, 지역구 의원 및 전북 연고 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혼신을 다했지만, 국회 예결위의 감액 의결로 인해 국회 단계의 증액 사업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는 앞으로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준 윤준병 예결소위 위원과 지역구 의원인 김운덕·이성운·정동영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 예결위 의원인 신영대 의원 및 한병도·이춘석·안호영·박희승·조배숙 의원 등 다수의 지역연고 상임위·예결위 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정부 추경 예산 및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에 힘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국가 예산 확보는 국회 단계 증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추경 예산 및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전주시의 찬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12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서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이경진 카카오펀터프라이즈 대표, 박진배 전주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IT 생태계 본격 확장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

전주대 스타센터에 구축... 지난 9월 협약 '결실'

지역 내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 들어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도의회 의장, 이경진 카카오펀터프라이즈 대표, 박진배 전주대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는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전주대, 아토리서치와 협력해 조성됐다.

도와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전주대, 아토리서치는 지난 9월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문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IT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는 지역 디지털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과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운영

진안·임실 등 도내 식품사막 지역 대상... 내년 1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식품사막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장터 서비스인 '내집앞 이동장터'를 시범운영한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소매점 감소로 인해 식품과 생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은 진안과 임실 내 5개 마을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전북특

별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CU편의점(BGF리테일)이 협업하여 CU편의점의 냉장 이동차량을 활용해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구매 의향 품목을 사전에 조사해 판매 품목에 반영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